『종교와 문화』 제24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3, pp. 39-59

한국 이슬람 문화콘텐츠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이슬람중앙회 성원방문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안 신*

Ⅰ. 서론: '타자'에서 '이웃'으로
Ⅱ. 축제와 교육을 통한 이슬람 이해: 에딘버러 사례
Ⅲ. 한국이슬람중앙회의 성원방문프로그램 단계별 이해
Ⅳ. 결론: 새로운 문화콘텐츠개발의 필요성

Ⅰ. 서론: '타자'에서 '이웃'으로

이슬람문화는 한국에서 여전히 낯선 '타자'(other)다. 7세기 중동에서 발생한 이슬람은 '평화와 순종의 종교'로 인식되기보다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11년 7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기독교 근본주의자는 93명의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후 "무슬림으로부터 서유럽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번 테러를 자행하였다고 시인하였다. 2013년 보스턴마라톤의 테러사건과 런던의 군인참수사건에서도 확인되듯이 기독교 세계관이 물러난 서구에서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이슬람 공포심이 일고 있다.

한국의 종교 인구는 전체의 53%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불교와 기독교에 속한다. 그러나 무슬림은 4만 5천 명으로 0.1%도 안 된다. 한국의 이슬람공동체는 서구에서 무슬림이 경험하는 종교적 차별을 받고 있다. 한국의 거주외국인이 120만 명을 넘어섰지만 다문화사회에 어울리는 '이웃'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은 아직까지 묘원(渺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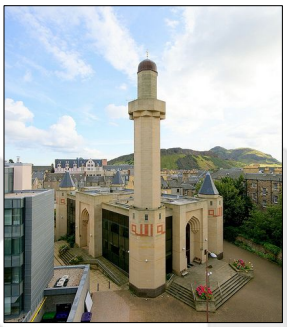
본 논문은 한국 이슬람 문화콘텐츠의 활성화 사례로서 한국이슬람중앙회[1]가

* 배재대학교 종교학 교수, shinahn@pcu.ac.kr

1) 1964년 10월에 시작된 한국이슬람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공하는 성원방문프로그램의 특징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내부자의 관점으로 공감적 이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종교현상학의 가치판단중지와 본질직관의 방법을 최대한 사용하였다.[2] 이 연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이태원 중앙성원(Central Masjid)을 방문한 경험과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었다.[3]

Ⅱ. 축제와 교육을 통한 이슬람 이해: 에딘버러 사례


[그림1] 에딘버러성원

한국의 사례를 다루기 전에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슬람 이해의 사례를 들어보자. 영국의 에딘버러에 위치한 중앙성원([그림1])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파하드(Fahad, 1921-2005)국왕의 지원을 받아 3억 5천만 파운드를 들여 1998년에 완공되었다. '고딕양식의 부활'이라고 불리는 스코틀랜드 배로니얼(baronial) 건축양식이 결합된 모스크에는 하나의 높은 첨탑(minaret)과 세 모서리에 낮은 탑(tower)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1990년대에 대형모스크가 필요했던 무슬림들은 기존의 건축물을 유지·보수한다는 조건 아래 모스크 설립부지를 구입하였다. 건축가 바실 알바야티(Basil Al-Bayati)의 설계로 6년에 걸쳐 세워진 모스크에는 1100명을 수용하는 남성 예배실과 150명을 수용하는 예배를 위한 여성 전용 발코니가 마련되었다. 에딘버러중앙성원은 남녀 세정실(洗淨室)과 다목적실 및 식당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슬람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랍어와 꾸란에 대한 정기 강좌도 열고 있다.

이슬람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에딘버러중앙성원은 에딘버러축제가 열리는 8월에 모스크를 일반시민에게 개방하여 이슬람을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4] 비무슬림 방문객도 축제동안에 무료로 이슬람 예술품을 감상하고 이슬

한남2동 732-21의 서울중앙성원에 그 본부를 두고 있다.

2) Gavin Flood, *Beyond Phenomenology: Rethinking the Study of Religion,* London and New York: Cassell, 1999, pp. 96-99.

3)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의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였다. 많게는 200명에서 적게는 30명의 학생들이 단체로 방문하였다.

4) 에딘버러에서 열리는 이슬람축제(Islam Festival Edinburgh, IFE)의 홈페이지(http://www.

람 관련 특강에도 참여한다. 최근까지 “여성과 이슬람”, “무슬림 예수”, “누가 샤리아를 두려워하는가?”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비무슬림의 성원방문에 대하여 반대할 법한 원로 무슬림들도 젊은 무슬림들과 여성 무슬림들이 대중들을 만나 친밀한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이슬람을 새롭게 알린다는 차원에서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

아랍어로 초청을 뜻하는 ‘다와’(dawah)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교리적으로 개종을 강요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지양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종교인들과의 평화적 만남과 합리적 설득을 통하여 이슬람을 알리고 이해와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을 다와의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5] 영국의 다른 모스크들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에딘버러중앙성원의 이슬람문화이해프로그램은 그 개방성과 창조성이 보여주듯이 서방미디어에 의하여 유포되어 온 이슬람의 왜곡된 이미지를 공감적 입장에서 재조명하고 학자들 간의 학문적 논의의 수준에서의 교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교육의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슬람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지성과 합리성에 토대를 둔 일방적인 지식전달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무슬림과 비무슬림 사이에 친밀하고 정직한 만남의 공간을 실질적으로 제공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고 평상시 갖고 있던 이슬람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 직접 무슬림에게 묻고 답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감성과 정서의 교류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영국사회에서 이슬람에 대한 가치판단을 소수의 특정 무슬림이 저지른 폭력적 행동에 근거하여 두려움의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태도는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다문화의 창조적 힘을 나누고 도시문화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며 인류의 문화유산과 지혜를 배우는 ‘평화와 화해의 동반자’로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6]

사회의 일상적 경계가 무너지는 축제에서 낭송되는 꾸란의 구절과 하루 다섯 번 드리는 무슬림의 예배모습은 낯선 이슬람세계를 처음 관찰하는 비무슬림의 눈에는 ‘삶의 방식’(a way of life)으로서 그림 같이 펼쳐진다. 복잡한 신학적 교리의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이슬람의 의례는 구체적인 삶 가운데 준행되는 무슬림의 의무이며 무슬림의 삶을 지탱하고 역사의 위기를 극복하며 삶을

---

islamfestival.com/)를 참조하라. (접근일 2013년 5월 15일)

5) Isma'il al-Faruqi, “On the nature of Islamic da'wah,” in *The Christian Mission and Islamic Da'wah*. ed. by The Islamic Foundation, London: The Islamic Foundation, 1982, pp. 33-39.

6) David Kerr, “Islamic da'wa and Christian mission,”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vol.89, vol.353, 2000, pp. 167-168.

인도하는 인생의 지남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7)]

중앙성원이 에딘버러시의 구도심에 있어서 에딘버러축제([그림2])와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시민도 단순히 이슬람을 이해하기 위하여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에딘버러시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이슬람문화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이슬람을 제 3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출발점이지 결코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위한 포교의 자리가 아니다.

[그림2] 에딘버러축제

에딘버러의 이슬람축제는 "영성과 평화의 축제"(Festival of Spirituality & Peace)와 관련이 깊다.[8)] 2001년부터 시작된 "영성과 평화의 축제"는 에딘버러시의회와 다종교협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에딘버러를 대표하는 10개 종교의 단체들과 그 단체장들이 참여하여 기독교와 이슬람을 중심으로 인간성의 회복과 평화적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종교 간 대화의 자리다.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중앙성원이 축제와 다문화교육을 통한 이슬람이해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연구중심의 교류도 서구에서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 옥스퍼드대학교의 이슬람연구소(Oxford Centre for Islamic Studies)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공동연구를 통하여 연구결과물들을 발표하고 있다.[9)] 미국 코네티컷주에 위치한 하트포드신학대학원(Hartford Seminary)은 미국기독교의 맥락에서 이슬람학의 오랜 전통을 가진다. 1892년에 기독교 선교사를 양육하기 위한 아랍어강사로 임용되었던 글래스고 출신의 이슬람학자 던컨 맥도날드(Duncan Black Macdonald, 1863-1943)가 미국에서 이슬람학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73년 던컨맥도날드연구소가 만들어지면서 지금도 미국 내 이슬람연구와 기독교와의 비교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계간지 『무슬림세계』(The Muslim World)를 출간하며 새로운 이슬람연구를 소개하고 있다.[10)] 특히 2001년 9월 11

---

7) Catherine Bell. *Ritual,* Oxford: OUP, 1997, 류성민(역), 『의례의 이해』, 오산: 한신대출판부, 2007, pp. 6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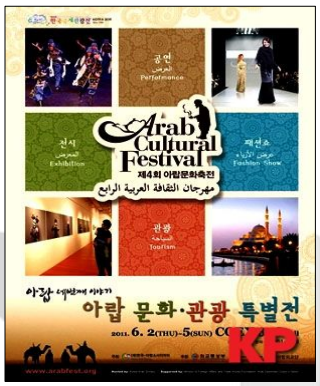
8) "영성과 평화의 축제"의 홈피(http://www.festivalofspirituality.org.uk/)를 참조하라. (접근일: 2013년 5월 14일)

9) 1985년 설립된 옥스퍼드 이슬람연구소의 홈 페이지(http://www.oxcis.ac.uk/)를 참조하라. (접근일: 2013년 5월 15일)

일 3천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9·11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슬람원리주의에 대한 서구인의 공포심과 무슬림 이웃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함께 고조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이슬람 관련 연구와 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Ⅲ. 한국이슬람중앙회의 성원방문프로그램 단계별 이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영국 에딘버러의 이슬람 방문프로그램과 이슬람축제의 사례처럼 세계종교로서 이슬람을 한국사회에 알리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200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아랍문화축전(Arab Cultural Festival)은 한국에서 열리는 대표적 이슬람축제다([그림3]). 2009년 2회 축전에서는 이화여대 ECC극장에서 아랍어서체 전시회와 시연회가 열렸다. 올해로 6회까지 진행되었는데, 공연, 영화, 전시, 체험 등 다양한 장르의 이슬람 문화콘텐츠가 매년 4-5일 간 소개되고 있지만 그 기간이 너무 짧고 참여국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11)]



[그림3] 아랍문화축전화보

이슬람을 폭력과 연관시키려는 언론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2001년 9·11사태와 유사한 사건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일어났다. 일련의 사건들은 종교의 긍정적 기능보다는 부정적 기능을 부각시켰고 종교가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12)] 2004년 3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통근열차 폭파사건이 일어나 191명이 사망했고, 2005년 7월 영국 무슬림 청년들이 런던지하철과 버스를 폭파하여 52명이 생명을 잃었다. 올해 4월 15일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무슬림형제의 폭탄테러로 3명이 사망했고 170여명이 부상을 입었고 5월 22일에는 영국의 아프간참전을 비판하는 나이지리아계 무슬림들이 영국 군인을 런던거리에서 참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

10) Bijlefeld, Willem A, “A century history of Arabic and Islamic studies at Harford seminary”, *The Muslim World*, vol.83. no.2. 2010, pp. 103-116.

11) 올해 6회 아랍문화축전에는 서울(6월 5-9일)과 부산(6월 25-30일)에서 아랍영화를 소개한다.

12) Jack Nelson-Pallmeyer, *Is Religion Killing Us?*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3, pp. 83-88.

2007년 아프간으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한국 기독교인 23명이 탈레반에 피랍되고 2명이 살해되면서 한국사회의 '이슬람 공포증'이 정점을 찍었다. 일부 개신교 신자들이 보여주는 미성숙한 배타성과 공격적인 선교활동은 불교와 이슬람을 비롯한 이웃종교의 가치를 폄훼하고 소통과 공존의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다문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인들은 이슬람성원뿐만 아니라 불교사찰을 "영적 전쟁터"로 간주하며 땅을 밟고 있다. 이웃 종교인이 거룩한 공간으로 믿고 있는 성별된 장소를 무단으로 침입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성전이 무너지라는 '저주'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내부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이슬람에 대하여 증폭되는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이슬람 공동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이슬람 이해 프로그램은 서울중앙성원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문프로그램이다. 지난 5년 간 필자는 참여관찰의 방법으로 성원방문프로그램의 기본구조를 분석하고 그 특징과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13] 물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담당자에 따라서 운영방식과 발표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구조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그 내용을 설명할 것이다. 터키로 귀국한 파룩 준불 선교사(dawi)에 이어 장 후세인 선교사와 한국인 담당자들이 방문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변화가 일고 있다.[14]

1. 준비단계: 신청과 사전조사

서울중앙성원의 방문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적인 호기심으로 방문신청을 한다. 본격적인 방문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 가지 예비단계가 있다.

첫째, 희망하는 방문날짜를 미리 정하여 인솔자는 프로그램 참가신청을 한다. 중앙 성원의 홈페이지에서 방문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전자메일이나 팩스로 방문 한 달 전에 접수한다.[15] 방문하는 사람은 (1) 유치원생에서 대학생에 이르는 학생그룹, (2) 대학원생과 전문연구자 등의 현장조사자, (3) 이슬람 국가로 파견되

13) 연구자는 프로그램 담당자와 참여 학생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문화인류학의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14) 한국이슬람교중앙회, 『한국이슬람 50년사』, 서울: KMF, 2005, p. 47.

15) 한국이슬람중앙회의 홈 페이지(http://www.koreaislam.org/)를 참조하라.

는 군인[16], (4) 이웃종교의 성직자(신부, 목사, 스님 등), (5) 구도자, (6) 관광객 등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단체와 개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17]

토요일 오전과 오후에는 일반인 대상 방문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는데, 단체신청자들이 있는 경우에 개인이 동석할 수 있다. 평일에는 50명단위로 단체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1층 강의실에 100명까지도 수용이 가능하지만 좌석문제로 인하여 50명이 적당하다. 한국이슬람중앙회에서 제공하는 방문신청서에는 방문단체명, 대표자, 연락처(전화, e-mail), 방문일시, 방문인원 등을 기본적으로 기재하고, "특별히 이슬람과 이슬람문화에 대하여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신청자가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단체로 방문할 때에는 이슬람중앙성원까지 가는 약도가 참여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성원방문객의 복장과 참여태도에 대한 주의사항이 미리 공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여학생은 2층 남성예배실에 출입하는 만큼 복장에 주의해야 한다.

둘째, 참여자가 성원을 찾아 가는 과정도 이슬람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다. 6호선 이태원역에 내려 3번 출구로 나와서 보광초등학교를 거쳐 성원에 이르는 길에서 참가자는 다양한 경험을 한다. 성원입구의 정문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 분의 사도입니다."라는 이슬람의 신앙고백(shahada)이 기록되어 있다([그림 4]). 주변에 개신교교회와 가톨릭성당이 있으므로 이태원의 다문화와 이슬람의 차이를 배울 수 있다. 이국적인 의상을 입고 있는 무슬림 남성, 히잡을 두른 여성, 이태원의 외국인 관광객, 한국무슬림 등의 모습은 평소 흔히 접할 수 없는 풍물(風物)을 제공한다. 이슬람 문화권의 전통음식점, 상점, 여행사, 옷가게, 서점, 제과점을 둘러보면서 이슬람지역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이슬람 할랄음식을 사 먹는 것도 이슬람문화를 접하는 방법이다. 정기적 예배시간이 방문일정과 겹치면 상점을 닫고 모스크를 향해 바삐 나서는 무슬림들과 같이 성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최근 무슬림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성원주

[그림4] 중앙성원의 신앙고백

16) 2011년 7월까지 17개국에 1,453명의 대한민국 군인이 평화유지와 국방협력의 차원에서 해외에 파견되었다. 이슬람 지역에 비교적 큰 규모로 파견된 부대에는 레바논의 동명부대(359명), 소말리아 해역의 청해부대(305명), 아프간 바그람의 오쉬노부대(350명), 아랍에미리트의 아크부대(147명) 등이 있다.

17) 안신, 『세계 종교의 이해』, 개정판, 대전: 배재대출판부, 2011, p. 20.

변에 늘고 있다.

학생들이 단체로 방문할 경우, 학생들 가운데 무종교인이나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이웃종교의 성지를 방문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므로 대체 공동체의 방문프로그램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18] 따라서 무엇보다도 방문의 목적이 이슬람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이슬람으로 개종을 시킨다든가 예배에 억지로 참석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인솔자와 프로그램 관리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본격적인 성원방문프로그램의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학생들은 모스크의 내부구조와 전시된 이슬람 관련 사진과 예술품을 자유롭게 관람한다. 1층 사무실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게시판들은 이슬람의 신조와 예언자의 계보 및 기독교와 이슬람의 비교 정보를 제공하여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의 밑그림을 보여준다. 물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는 달리 일방적 정보를 시각적으로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이슬람에 대하여 문외한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입구에 마련된 이슬람 소책자들과 주간회보도 한국 무슬림공동체(움마)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자료다. 방문 이전에 많은 학생들이 한국중앙성원의 홈페이지를 찾아 사전조사를 한다. 2012년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무슬림인구가 18억에서 21억으로 증가하였지만 홈페이지에 무슬림인구를 13억으로 명시하고 방문프로그램에서도 16억으로 설명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19] 때때로 커피나 녹차와 같은 따뜻한 음료가 프로그램참여자에게 제공되는데, 무슬림이 손님을 환대하며 차(茶)문화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일부 참여자는 인솔자의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한다. 적극적인 학생의 경우, 일찍 성원에 도착하여 삼삼오오 사진을 찍고 무슬림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프로그램의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성원 내부의 화장실을 사용하면 세정(udu)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시설과 화장실에 화장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러므로 성원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모스크 건물자체가 일종의 시청각 자료로 이용되는 셈이다. 이렇게 예비단계는 (1) 신청단계, (2) 성원도착단계 (3) 대기단계로 구성된다. 예비단계를 어떻게 활용하느

18) 이태원 지역에 힌두교 하레크리슈나 예배당과 이슬람 계통의 신종교 바하이신앙의 서울회관이 위치해 있다.

19) 홈페이지의 이슬람자료실에 이슬람의 역사, 예언자 무함마드의 삶, 꾸란 114장의 구성, 하디스 선집, 샤리아, 기본교리, 이슬람의 왜곡된 지식을 바로 알리기 등의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꾸란 본문과 샤리아는 아직까지 준비 중이다.

냐에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본 프로그램은 성원의 사무실 옆에 있는 강의실로 참여자들이 입실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학생들은 푸른색 모자이크로 꾸며진 강의실 안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우측 벽에 전시되어 있는 전주 성원([그림5])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이슬람성원들의 사진을 볼 수 있으며, 후방에 전시된 다양한 형태의 꾸란과 이슬람 예술품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입실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에 따라서 참여자를 남자와 여자로 분리하여 앉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오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차례로 앉는다.

[그림5] 전주 성원

2. '어둠에서 빛으로': 영화를 통한 이슬람 이해하기

과거 방문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주로 터키출신의 선교사들이었지만 최근에는 한국인 가이드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강사는 자신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왜 무슬림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사적인 개종이야기를 전달한다. 터키선교사들이 이슬람국가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무슬림으로 성장한 것에 반하여 한국무슬림은 주로 기독교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경우가 많았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도입부분에 가장 많이 보여주는 영상물은 세계 도처에 세워진 유명모스크들의 사진을 파노라마식으로 편집한 동영상이다. 중국, 이탈리아, 파키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수단, 터키, 영국 등에 건립된 성원들의 거대하고 화려한 모습은 이슬람이 더 이상 '아랍종교'(Arab religion)가 아니라 명실상부 '세계종교'(world religion)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며 성원의 건축양식이 지역마다 문화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전해준다. 라마단 기간을 맞아 메카에서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장면도 보여준다. 메카를 중심으로 가지런하고 조밀한 동심원을 그리며 질서정연하게 카으바를 향하여 어깨와 발을 맞대고 함께 예배하는 무슬림의 모습은 이슬람공동체(ummah)가 지닌 강한 연대성과 일체감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세계성원들을 소개하는 동영상 대신에 종교영화도 크게 활용하고 있

다. 영화는 종교적 상상력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흥미로운 형식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20]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때에는 이란에서 2007년 바흐라니 감독에 의하여 제작된 무슬림의 시각에서 본 예수의 어머니에 관한 영화 <성 마리아>(*Saint Mary*)를 보여준다. 그리고 2010년에 데킨스(Alan Deakins) 감독이 제작한 13분 분량의 단편교육영화 <1001가지 발명과 비밀도서관>(*1001 Inventions & the Library of Secrets*)[21]을 상영한다([그림6]). 이 영화는 중세를 "암흑시대"로 폄하해 온 서구 지성사의 지역적 편견을 극복하는 교육영화로서 초등학생들이 도서관 사서의 안내를 받아 서양에서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던 무슬림과학자들의 발명(사진기술, 비행기술, 의료기술, 천문기술, 동력기술 등)을 알게 된다는 이슬람문명의 "황금시대"를 새롭게 조명한 영화다. 현대사회에 익숙한 영상문화콘텐츠의 코드를 통하여 이슬람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참여자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그림6] <1001가지 발명과 비밀도서관>

이 영화의 줄거리를 좀 더 살펴보면 비밀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사서(벤 킹슬리 분)가 이슬람문명의 황금시대를 가르쳐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픽효과가 큰 역할을 한다. 영국의 초등학교 여교사가 초등학생들을 인솔하여 도서관을 방문한다. 학생들을 모둠으로 나누어 각각 그리스문명, 로마문명, 중세시대, 르네상스 등을 주제로 그 문명이 현대사회에 끼친 영향을 조사하는 과제를 내준다.

기독교세계관의 지배를 받아왔던 서양에서는 흔히 중세시대를 말하면 과학의 "암흑시대"를 연상하기 때문에 중세시대를 과제로 받은 모둠의 학생들은 처음부터 주눅이 들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도서관사서를 만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편견으로 인한 실망이 큰 만큼 반전도 극적으로 전개된다.

코끼리시계([그림7])의 모형을 손질하고 있던 도서관 사서는 이들을 도서관 안으로 이끌며 그들의 편견을 깨뜨림으로써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을 인도한다. 도서관의 외진 서제에 도착한 사서는 고서를 펼치며 자신을 중세시대의 과학자이며 공학도였던 알자자리(Al-Jazari, 1136-1206)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스페인에

20) 정종화, 『자료로 보는 세계의 영화』, 서울: 범우사, 2007, pp. 7-9.

21) 영화 <1001가지 발명과 비밀도서관>의 홈페이지(www.1001inventions.com/)를 참조하라. (접근일: 2011년 7월 21일)

서 중국까지 걸쳐있었던 거대한 무슬림문명의 놀라운 발명품들을 차례차례 설명한다.

[그림7] 코끼리시계

먼저 광학과 사진기의 원리를 발견한 알하젠(Al-hazen, 965-1040)이 등장하여 오늘날 디지털 카메라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한다. 둘째로 도서관의 높은 층에서 압하스 이븐 피르나스(Abas ibn-Firnas, 810-887)가 갑자기 비행선을 타고 나타나 날다가 추락한다. 그는 비행기와 우주선의 제작에 영향을 미친 과학자다. 셋째, '현대 외과의 아버지'라 불리는 알자흐라위(Al-Zahrawi, 936-1013)가 등장하여 그가 발명한 수술도구들이 아직까지도 병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증언한다. 넷째, 여성과학자 메리암 알리즈릴야(Merriam Al-ljliya)는 천문관측기구(astrolabe)를 발명하여 현대 천문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자평한다. 마지막으로 과학자 알자자리는 자신이 최초로 발명한 크랭크축과 코끼리시계를 보여준다. 특히 코끼리시계는 인도, 아프리카, 중국, 그리스, 이집트 등의 다양한 문화적 상징들이 창조적으로 융합된 다문화하이브리드의 상징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한 도서관사서는 갑자기 사라지고 아이들은 과제를 가지고 교사에게 돌아온다. 처음 교사가 보여주었던 우려와는 달리 망각된 이슬람 문명의 발명품에 대하여 배운 학생들은 자신감에 넘쳐있다. 마지막으로 코끼리시계를 다듬는 사서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이 영화는 짧지만 방문프로그램의 도입부분에 삽입함으로써 모스크를 방문하는 학생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변화시키는 정지작업을 한다. 과학과 종교의 담론에서 이슬람의 위치를 파악하는 일은 설득력이 있다.[22] 그러나 이슬람의 과학적 우수성을 주장하는 영화의 내용과는 달리 이어지는 방문프로그램은 이슬람의 교리를 직설법으로 소개하는 태도가 지나치게 부각되어 참여자에게 혼란을 준다. 종교와 과학을 다룬 영화의 객관적이고 설득적인 어조가 강연의 맥락에서는 주관성과 배타성에 의하여 파괴되고 있다.

---

22) Ted Peters, ed. *Science and Theology,* New York: Westview Press, 1999. 김흡영(역), 『과학과 종교』, 서울: 동연, 2002, p. 207.

3. 강의를 통한 이슬람 교리: 신조와 의무

영상을 15-20분 동안 감상하고 나면 나머지 30-40분 동안 이슬람의 기본교리에 대한 강의가 이어진다. 강의는 한국어나 영어로 제공된다. 먼저 강사는 한국사회에서 이슬람에 대한 잘못된 용어사용을 비판하고 정정하는 강의를 한다. 이슬람의 신으로서 알라(Allah)를 한국무슬림은 "하나님"으로 번역하는데, 알라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면 자애로우신"(Most gracious, most merciful) 속성을 지닌 존재로 강조하며 꾸란(Qur'an)이 인간의 책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를 수록한 경전임을 강조한다. 나아가 잘못된 용어들을 언급하며 교정한다. 이슬람을 특정한 민족과 연결시켜 "회회교(回回敎)" 혹은 "회교"(回敎)라고 부르는 것이 회족 외에도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등 10여 개의 다른 소수민족이 이슬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슬람강의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통념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양의 언론과 연구에서 이슬람을 '폭력과 테러의 종교'로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슬람은 어원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얻는 평화"(Peace through submission to God)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슬람신자'라는 용어 대신에 '무슬림'(Muslim)이라는 용어를, '알라신'이란 말을 사용하는 대신에 '알라' 혹은 '하나님'이란 용어가 더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기독교인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므로, 결국 문화마다 언어가 다를 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하나님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23] 꾸란의 구절에 나오는 신의 속성들도 함께 나열된다. 꾸란 구절 가운데에는 "일러 가로되 하나님은 단 한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성부와 성자도 두지 않으셨으며, 그분과 대등한 것 세상에 없노라."(꾸란 112: 1-4)라는 한국어 번역 꾸란의 구절이 자주 인용된다([그림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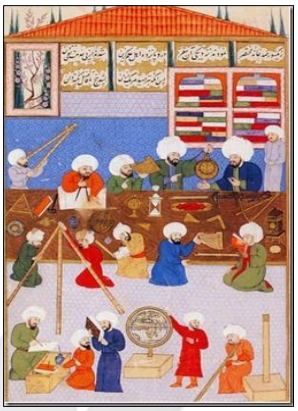
[그림8] 한국어 꾸란

이슬람사회를 유지하는 샤리아법의 원천으로서 꾸

23) Jacob Neusner, Bruce Chilton, & William Graham, *Three Faiths, One God,* Boston: BAP, 2002, pp. 7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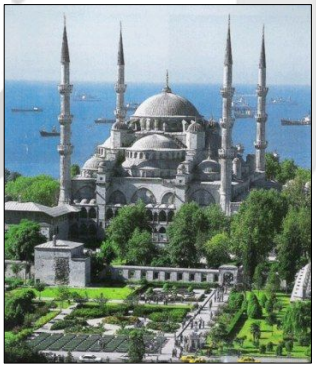
24) 본 논문에서 꾸란을 인용할 때에는 최영길 역,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메디나: 파하드 국왕 성 꾸란 출판청, 2001)을 사용하였다.

란과 하디스를 소개한다.[25] 이슬람의 경전 꾸란은 총 604페이지 11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언자의 언행록 하디스(Hadith)는 꾸란을 보완한다. 특히 꾸란에는 '여성의 장'[제 4장 니싸아]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이슬람문화에서는 다른 문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천국이 어머니의 발밑에 있다."는 하디스의 내용도 함께 소개한다.



[그림9] 무슬림과학자들

꾸란의 과학적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16세기 서구에서 발견한 지문의 사실이 이미 꾸란에 계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그림9]).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손가락 끝에 뼈까지도 부활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다."(75: 4)는 구절과 "그대의 주께서 천사들에게 말씀으로 영감하여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니 신앙인들에게 확신을 줄 것이며 내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리니 그들의 목을 때리고 또한 그들 각 손가락을 때리라."(8: 12)는 구절을 증거로 제시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그림 10] 블루모스크

터키선교사가 처음부터 방문프로그램의 기획에 참여하여서 비교적 개방적인 모습의 이슬람이 참여자들에게 소개된다. 이스탄불에 있는 블루모스크([그림10])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슬람국가에서 유대교회당과 기독교교회가 이슬람성원과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다시 성원 내부의 3D사진을 보여주며 기도할 때에는 카펫 위에서 기도하며 카으바의 예배방향(qibla)을 가리키도록 벽에 파놓은 홈(mihrab)과 합동예배에 이맘이 올라가 설교를 하는 계단이 있는 단상(minbar)을 보여준다.[26] 성원 내부에는 인물이나 동물의 형상과 이미지가 없다는 점에서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전통이 뚜렷하다.

이슬람 건축양식과 함께 꾸란의 번역불가능성도 소개한다. 아랍어로 쓰인 꾸란은 다른 언어로 번역되면 해설서로 전락하고 번역 과정에서 오역의 가능성이 있

---

25) Ann Lambton, *State and Government in Medieval Islam,* New York: OUP, 1981. 김정위(역), 『중세이슬람의 국가와 정부』, 서울: 민음사, 2007, p. 36.

26) 안신, 「종교적 방향성과 칼 융의 원형: 한국 이슬람과 바하이신앙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53, 2008, pp. 185-211.

기 때문에 아랍어 꾸란만큼 권위를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꾸란에는 구약의 예언자들을 포함하여 25명의 예언자들이 등장하는데, 예언자 무함마드뿐만 아니라, 예수, 모세, 아브라함, 모세 등을 포함한 모든 예언자를 믿어야 '진정한 무슬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내린 계시의 문서는 꾸란 외에는 모두 원본을 상실했으므로 꾸란이 최종적인 권위를 지닌다고 믿는다.[27]

무슬림의 의무는 '다섯 기둥'의 실천강령으로 요약된다.

① 신앙고백(declaration of faith)
② 의무기도(five prayers a day)
③ 이슬람세(charity to the poor)
④ 금식(fasting)
⑤ 하지(pilgrimage to Makkah)

여기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다."는 신앙고백은 신의 유일성에 대한 증언으로 무슬림이 되기 위하여 증인 앞에 고백해야 하는 신앙의 핵심이다. 다른 의무들은 신념의 구체적 실천과 관련된다. 의무예배는 하루 다섯 차례 동틀 때(pre-dawn), 정오(noon), 늦은 오후(mid-afternoon), 일몰 직후(after sunset), 취침 직전(night)에 한다. 예배는 메카를 향하여 행해야 유효하며 예배에 임하기 전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정을 한다. 이슬람세는 소득의 2.5%로 하되 사용할 것을 다 쓰고 남은 순수입 가운데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무슬림이 되어도 기독교인이 내는 십일조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다고 언급한다. 금식은 라마단월에 신이 허락한 축복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로, 낮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새벽과 저녁에 식사를 하므로 하루 종일 음식물을 먹지 않는 금식과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순례인 하지는 건강하고 금전적으로 허락이 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순례의 목적지 카으바는 직육면체(cube)로 안이 비어있으며 카으바 신전이 있는 하람성원은 한 번에 3백만 명이 동시에 예배할 수 있는 이슬람의 거룩한 성지라고 설명한다.[28]

---

27) 최영길, 『꾸란과 성서의 예언자들』, 서울: 살림, 2009, pp. 7-11.
28) 손주영, 『이슬람: 교리, 사상, 역사』, 서울: 일조각, 2005, pp. 210-229.

4. 남녀유별의 이슬람 문화소개

[그림11] 예배하는 뉴욕무슬림들

미국 뉴욕시의 거리 한복판에서 허리를 굽혀 함께 금요일 합동기도를 하는 무슬림들의 모습([그림11])은 참여자들에게 큰 충격을 준다. 강사는 미국의 무슬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예배를 공개적으로 드리게 된 것처럼 언젠가 한국의 이슬람 이주 공동체도 놀랍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한다. 그리고 세계인구 중 16억(1.6billion)명이 무슬림이며 58개국의 이슬람 국가가 있지만 그 가운데 82%가 비아랍계 무슬림일 정도로 이슬람은 '세계종교'로 성장하였다고 설명한다. 그 증거로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란, 터키 등 무슬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가 모두 아랍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국가임을 강조한다.

이어 한국의 대표성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슬람문화를 대표하는 종려나무열매(tamr), 빵, 히잡, 커피 등을 보여주면서 무슬림은 금주를 하기 때문에 손님을 접대하기 좋아하고 커피와 차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강사는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며 한국 사회에서 "왜 술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시고 이웃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밤에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간접적으로 한국의 음주문화와 그로 인한 음주교통사고의 위험을 지적한다.

강사는 이슬람 문화와 한국 문화의 유사점을 비교하며 선교의 접촉점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여성이 외부로 외출할 때 입었던 장옷과 무슬림 여성의 히잡을 비교한다. 일본에서는 전철에서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증가하자 여성전용 차량이 마련되었다고 소개하면서 히잡은 어디까지나 무슬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서구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여성의 활동과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여성의 가치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 있다는 점에서 히잡 착용은 오히려 여성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는 미풍양속으로 소개하는데 한국의 유교문화에서 남녀의 활동공간을 구분했듯이 이슬람도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아닌 남녀유별의 오랜 전통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29]

---

29) 최영길, 『이슬람문화』, 개정증보판, 서울: 알림, 2004, pp. 206-210.

한국 군인들이 중앙 성원에서 예배하는 모습, 일본무슬림 여성, 동남아시아 무슬림 여성의 사진은 히잡의 모양과 색상이 지역마다 다양함을 보여준다([그림12]). 한편 이슬람이 스포츠선수, 가수, 정치인 등 문화적 아이콘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서울중앙성원을 방문한 권투선수 무함마드 알리(Muhammad Ali)의 사진과 프랑스 축구선수 지네딘 지단과 프랑크 리베리, 영국의 가수 캣 스티브의 모습도 보여주며 서구 대중문화 가운데 이슬람 신앙이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으로 보여준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10만 명 무슬림에게 10개 안팎의 성원이 있지만 중국에는 3천만 명의 무슬림이 3만 개 정도의 성원을 보유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설명한다.

[그림12] 히잡 착용한 여성들

5. '남성의 공간'에 여성 참여하기: 예배참여관찰과 질의문답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강의 후에 남성의 예배공간을 견학하는 일이다. 1층 강의실에서의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면 외부계단으로 2층 남성예배실로 올라가 성원의 내부를 관찰한다. 학생들은 예배당 안에서 단조로우면서도 이국적 모자이크타일의 내부 장식을 발견한다([그림 13]). 강의실에서 설명된 내용들이 다시 강조되고 예배실에서 경건히 예배하는 무슬림의 모습은 '살아있는 신앙'을 체험케 한다. 예배하는 무슬림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학생의 질문과 강사의 답변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림13] 서울중앙성원의 남성예배실

학생들이 제기하는 질문들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듯이 이슬람 인권문제에 집중된다.[30] 주로 다루어진 질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0) 손주영, 『이슬람: 교리, 사상, 역사』, pp. 449-472.

“왜 성원이 돔 모양으로 되어 있나요?”
“무슬림은 하루 다섯 번 기도시간을 정확히 맞춰 기도하나요?”
“예배를 드릴 때 서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배하는 구체적 절차와 낭송되는 꾸란 구절을 설명해 주세요.”
“성원 외부에 있는 첨탑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왜 무슬림은 기독교인처럼 거리에서 선교하지 않나요?”
“한국에 다수를 이루는 기독교와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무슬림 내부의 종파들 사이에 관계는 어떠한가요?”
“미디어에서 태형을 받는 무슬림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슬람국가에서 여성이 극심한 인권유린과 성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 그런가요?”
“명예살인은 이슬람공동체에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나요?”
“9 · 11사태는 이슬람원리주의자의 소행인가요?”
“성전(聖戰, jihad)에 참여하다 사망하면 천국에 가서 순수한 배우자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질의문답시간이 반복되면 될수록 강사의 대응방식도 부드러워지고 처음에 보이던 당황하는 기색도 없어진다. 질문에 대한 강사의 답변은 주로 부정적 사례를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이슬람을 왜곡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이슬람을 일부 테러리스트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대다수 온건한 무슬림들은 거부하고 있으며 그러한 폭력과 상관이 없다고 단언한다. 이슬람은 다른 종교처럼 생명을 존중하며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참된 이해에 도달해야 한다고 참여자들에게 충고를 덧붙인다.

방문한 학생들도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이지만 그들의 의문은 새로운 양태를 띠며 발전한다. 이후에 개별적으로 다른 방문일정을 잡아 다시 방문하는 참여자들도 있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성원에 남아 질문을 이어가는 참여자들도 있다. 프로그램이 터키에서 온 선교사들에 의하여 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서구문화에 익숙한 개방적 이슬람을 접할 수 있지만 시아파 무슬림이나 수피와 같은 신비주의자 그리고 이슬람 원리주의자를 만날 수는 없었다. 다만 ‘텍스트’(text)에 갇혀 있었던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가 구체적인 ‘맥락’(context)에서 경험과 만남을 통하여 대화와 공존의 문법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Ⅴ. 결론: 새로운 문화콘텐츠개발의 필요성

[그림 14] 서울중앙성원

요컨대 이태원 서울중앙성원([그림14])에 위치한 한국이슬람중앙회는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이슬람의 기본교리와 의례 및 문화에 대한 방문프로그램을 운용해 왔다. 필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주로 대학생들을 인솔하여 참여관찰을 반복적으로 시도함으로써 강사와 자료 및 전달방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슬람성원방문프로그램은 크게 (1) 준비단계, (2) 미디어콘텐츠상영, (3) 강의단계, (4) 이슬람문화소개, (5) 남자예배당체험 및 질의문답 등 크게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의외로 학생들은 본 단계라 할 수 있는 (2)부터 (5)의 단계만큼이나 (1)의 준비단계와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가며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음식과 서적의 구매에 큰 의미를 두었다. 현장체험학습으로 방문한 경우에는 지도자가 방문기 작성을 참여자에게 과제로 부여한다면 방문 후에 참여자가 받은 인상과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다문화 종교교육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된다.

그러나 성원방문프로그램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강사마다 자신이 이슬람으로 회심한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 강사의 재기 넘친 입담이 사실을 모호하게 소개하거나 과장되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무슬림은 주로 아랍어와 이슬람을 공부하다가 스스로 회심을 결심한 경우가 많았지만 외국무슬림들은 이슬람문화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슬람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자발적인 결심보다는 특수한 상황이 종교의 선택을 가능케 했다는 인상을 참여자에게 준다. 한편으로 지나치게 이슬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호교론(護敎論)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슬람의 세계관을 시청각자료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이슬람을 변호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거북한 느낌을 준다. 때로는 신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는 식으로 강의가 포교나 선교의 방향으로 진행할 때에는 인솔자로서도 필자도 큰 부담을 느꼈다.

21세기 과학시대에 '이슬람공포증'이라는 실체가 없는 사회의 병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슬람을 무슬림의 관점에서 공감적이며 객관적으로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프로그램에 담겨져 있다. 위에 분석한 성원방문프로그램과는 달리, 보다 신정론(神正論, theodicy)에 관련된 선교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도 있지만 학생들의 호응을 받지는 못한다. 오히려 이슬람의 문화와 핵심적 믿음과 실천을 영상과 이미지를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오래 기억되고 좋은 인상을 주었다. 한편 강사의 교육 스타일에 따라서 학생들 가운데 특히 여학생들이 이슬람을 여성차별적인 종교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강의에서 개인경험을 사례로 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이슬람을 소개할 때에 개인의견과 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슬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슬람 관련 문화콘텐츠의 개발이 시급하다. 문서를 통한 단순히 교리적 접근을 넘어 다양한 문화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소수종교로 남아 있지만 이슬람의 세계적 위상을 생각해 볼 때 축제와 다문화 종교교육과 연계한 새로운 문화콘텐츠가 추후에 계속해서 개발된다면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에 대한 고질적인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객관적이며 공감적인 이해에 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문화콘텐츠, 한국이슬람, 서울중앙성원, 에딘버러중앙성원, 성원방문프로그램

원고접수일: 2013년 5월 20일
심사완료일: 2013년 5월 29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0일

참 고 문 헌

손주영, 『이슬람: 교리, 사상, 역사』, 서울: 일조각, 2005.

안 신, 「종교적 방향성과 칼 융의 원형: 한국 이슬람과 바하이신앙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53집(2008.12.).

안 신, 『세계 종교의 이해』, 개정판, 대전: 배재대출판부, 2011.

정종화, 『자료로 보는 세계의 영화』, 서울: 범우사, 2007.

최영길, 『이슬람문화』, 개정증보판, 서울: 알림, 2004.

최영길, 『꾸란과 성서의 예언자들』, 서울: 살림, 2009.

한국이슬람교중앙회, 『한국이슬람 50년사』, 서울: KMF, 2005.

Al-Faruqi, Isma'il. "On the nature of Islamic da'wah," in The Islamic Foundation, ed. *The Christian Mission and Islamic Da'wah.* London: The Islamic Foundation, 1982.

Bell, Catherine. *Ritual.* Oxford: OUP, 1997, 류성민(역). 『의례의 이해』. 오산: 한신대출판부, 2007.

Bijlefeld, Willem A. "A century history of Arabic and Islamic studies at Harford seminary", *The Muslim World.* vol.83. no.2. 2010.

Flood, Gavin. *Beyond Phenomenology: Rethinking the Study of Religion.* London and New York: Cassell, 1999.

Kerr, David. "Islamic da'wa and Christian mission,"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vol.89, vol.353, 2000.

Lambton, Ann. *State and Government in Medieval Islam.* New York: OUP, 1981. 김정위(역), 『중세이슬람의 국가와 정부』, 서울: 민음사, 2007.

Nelson-Pallmeyer, *Jack. Is Religion Killing Us?.*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3.

Neusner, Jacob & Bruce Chilton, William Graham. *Three Faiths, One God.* Boston: BAP, 2002.

Peters, Ted. ed. *Science and Theology.* New York: Westview Press, 1999. 김흡영(역), 『과학과 종교』, 서울: 동연, 2002.

<Abstrac>

A Phenomenological Study on Islamic Cultural Contents: Focusing on the Masjid Visiting Programme of KMF

Ahn, Shin (Pai Chai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Islamic cultural contents, especially the Masjid visiting programme of the Korea Muslim Federation(KLM). Edinburgh Central Masjid offers non-Muslim visitors the chance to experience Islamic festivals and multi-culture education. Since the images of Islam are distorted by Western media, Korean Muslims try to recover their images through the visiting programme. This programme consists of key stages.

First, preparation is necessary. Studying Islam through reference books helps students to understand Islamic cultures. Second, Islamic films makes non-Muslim participants to overcome their bias. Third, lectures delivered by Muslims focus on five pillars and six beliefs as the foundations of Islamic worldview. Fourth, Islamic customs and cultures are different from our ones in terms of the status and value of woman. Fifth, to come into male prayer room gives participants the direct experience to see Islamic arts and Masjid's interiors.

In conclusion, Seoul Masjid visiting programme is useful for non-Muslims to understand Islam. But it has several points to be improved for its effectiveness.

Key words: Cultural Contents, Korean Islam, Seoul Central Masjid, Edinburgh Central Masjid, Masjid Visiting Programme